

# 2026 스토리텔링 공모전 1차 심사 통과작

제 목	한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기준이 바뀐다
<p>면접장 문을 열던 순간 바퀴 소리가 먼저 들어갔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당기는 동작이 평소보다 길어졌다. 작은 턱 하나가 휠체어를 멈추게 했다. 문을 넘는 데 걸린 몇 초가 예상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그 짧은 순간이 그날 상황 전체를 설명하는 장면처럼 머릿속에 남았다. 그 시간 동안 면접장은 조용했지만, 정적 속 시선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p> <p>면접관의 시선이 서류에서 바닥으로 내려왔다. 첫 질문은 예상과 달리 업무 내용이 아니었다.</p> <p>“출퇴근은 괜찮겠어요?”</p> <p>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질문의 방향은 분명했다. 능력이 아니라 이동이 먼저 확인 대상이었다. 나는 준비해 온 답을 차분히 설명했다. 이동 방법, 시간 조정 계획, 예상 상황과 대응 방식까지 하나씩 말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기준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 끄덕임이 이해의 표시인지 단순한 반응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다.</p> <p>그날 탈락 이유를 설명해 준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고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없었다.</p> <p>집으로 돌아온 뒤 방문을 닫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또렷해졌다. 나는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일을 증명할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다. 납득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었다.</p> <p>그날 이후 생각의 방향이 달라졌다. 나를 설명하는 대신 기준을 보기 시작했다. 왜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출발선 앞에서 멈추는지 알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사람보다 기준이 먼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일자리는 이미 특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능력을 보여 줄 기회조차 생기지 않았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 조건이었다.</p> <p>그렇게 시간을 건넌 지금 나는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한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를 연결하고 환경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일을 하면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다.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사례들은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 준다.</p> <p>예전에 한 활동지원사가 업무 기록 방식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나는 “익숙해지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대신 작성 순서를 바꾸고 절차를 단순화했다.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일이었다. 결과는 달라졌다. 능력 문제처럼 보였던 일이 설계 문제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p>	

그 장면을 본 순간 알게 됐다. 평가가 틀린 게 아니라 기준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는 점이였다.

비슷한 장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 환경이 바뀌자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양을 처리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조건이 달라지자 결과가 달라졌다. 그때마다 생각이 또렷해졌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조건을 바꾸는 편이 훨씬 빠르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 차이가 곧 가능성과 불가능의 차이로 이어진다.

올해 초 회의 시간에 센터장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이번 인사에서 부장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박수가 나왔고 회의는 계속 이어졌다. 나는 크게 반응하지 못했다.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장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였다. 예전 면접장에서 문턱 앞에 멈춰 있던 휠체어가 생각났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존재했다.

최근 장애인고용공단 지원으로 보조공학기기를 받았다. 같은 시간에 처리 가능한 업무량이 늘었다. 몸의 부담은 줄었다. 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였다. 제도는 배려가 아니라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장치라는 사실을 그때 실감했다. 환경이 바뀌면 평가도 달라진다. 평가가 달라지면 기회도 달라진다.

나는 장애인근로지원인 제도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업무 속도가 달라진다. 혼자 해야 한다는 기준이 강할수록 시작은 늦어진다. 성과 기준으로 보면 출발 지점이 달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그 변화를 현장에서 매일 확인한다.

어느 날 한참 어린 대학교 후배가 찾아왔다. 같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다.

“지금 장애인일자리 참여형에 참여하면서 일 배우고 있어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말했다.

“나도 나중에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제부터 저 선배님 껌딱지 해도 되죠?”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게 됐다. 한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한 사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기준도 함께 달라진다는 사실이였다. 변화는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주변과 함께 움직인다.

며칠 뒤 후배에게 메시지가 왔다.

“일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나는 짧게 답했다.

“하루 버티지 말고 방법을 바꾸자.”

또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다.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한가요?”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동작이 필요한지, 이동이 필요한지 차례로 물었다. 몇 마디 대화가 이어진 뒤 상대의 말투가 달라졌다.

“생각보다 가능한 일이 많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장애인 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아니라 경험 부족이다. 알지 못하면 가능성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른다.

나는 매일 변화를 본다. 일을 시작한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을 본다. 가족의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을 본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도 본다. 그 장면들이 반복될수록 확신이 강해진다.

장애인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다. 사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장면이다. 나는 오늘도 그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 가까이에 서 있다.